

《서가에 꽂힌 책》

책꽂이의 역사를 통해 책과 마주하다

글_장동석 기자

책과 좀 친분이 있다는 사람치고 자신만의 서가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담이두어야 하는 책들을 발품 팔아 장만한 뿌듯함은 번듯한 서가에 꽂혀야만 제몫을 하게 마련인데, 손바닥보다 살짝 큰 집은 서가는 고사하고 책장 두어 개를 들여놓을 자리마저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 어이하랴. 사야할 책은 넘쳐나고, 정작 경건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할 공간인 책상은 자리를 찾지 못한 책들의 임시, 아니 영구 거처가 되고야 마는 것을.

《서가에 꽂힌 책》은 재미있는 책이다. 사실 제목만 보고 책을 구입했을 때는, 책을 주제로 한 책은 무엇이든 사야 직성이 풀리는 나로서는, '책' 들의 향연(香煙)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우째 이런 일이?' 《서가에 꽂힌 책》은 '책' 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가' 즉 '책꽂이' 에 포인트가 있다. 물론 헨리 페트로스키의 전작들, 기발한 발상들이 빛나는 《포크는 왜 네 바퀴의 갈퀴를 달게 되었나》와 《연필》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래도 그렇기 '서가에 꽂힌 책' 이라는 제목으로 고작 책꽂이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첫 장을 읽으며 영화 《넘버3》의 송강호 버전으로 "배신이야 배신" 을 연발했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지.

그러나 《서가에 꽂힌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흡인력을 발휘하는 묘한 매력 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책꽂이의 역사를 '책' 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그리하여 책꽂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꽂이 그 자체가 '책' 이라고 말이다. "박학하고, 재치 있고, 사려 깊고, 읽기 쉬운" 글을 쓴다는 책 낱개의 저자 소개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헨리 페트로스키는 "책꽂이와 거기 담긴 책이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통 무시되고 있는 책꽂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책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 만약 책꽂이가 없다면 무슨 수로 그 많은 책들을 수집(?)할 수 있으랴. 도서관은 또 어떨까. 책꽂이가 없었다면 '도서관' 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나 했겠는가. 결국 저자는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을 책꽂이라는 타자를 이용해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이 읽을수록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것은, 책과 책꽂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거듭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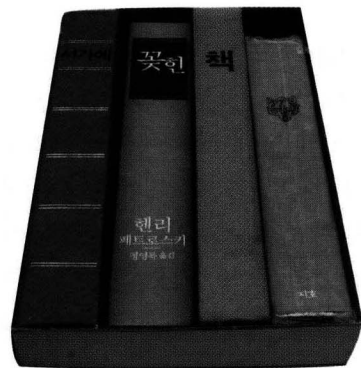
책꽂이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그 근원적 사유부터 설명하는 동시에,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고 있기 때

문이다. 사서이자 운율학자 멜빌 듀이의 "책꽂이 설치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실수는 선반 처짐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은 '조립식 책꽂이' 를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선반의 처짐은, 조립식 혹은 싸구려 책꽂이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책이 있던 곳이면 늘 발생했던 문제이다. 헨리 페트로스키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학 칼럼니스트답게 선반이 처지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집에 책꽂이가 조금이라도 이상을 보이는 독자라면, 이 책 《서가에 꽂힌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넘쳐나는 책들로 고심하는 장서가들이 있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된다. 본문에서는 대학이나 공동도서관의 고민, 즉 날마다 들어오는 신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진열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부록에 가면 개인 장서가가 책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무려 21가지나 제시한다.

'저자의 성 순서에 따라, 제목 순서에 따라, 주제에 따라, 출판사에 따라' 처럼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도 있고 '감정적 가치에 따라, 즐겨 있는 정도에 따라' 처럼 주관적인 기준도 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독자들의 몫으로 저자는 남겨둔다.

"배신이야 배신" 을 연발했던 첫 장과 달리,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를 더하는 이 책은, 구입한 지 5년이 넘었으나 처음 구입했을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책방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귀중한 냄새도 처음 그대로이고, 구입 당시부터 빛바랜 듯한 표지는 여전히 빛바랜, 그러나 묘한 매력을 더해준다. "인공 조명이 아니라 따사로운 봄볕 아래서 바람에 넘어가지 않게 책장을 붙들고 책을 읽을 때의 즐거움을 느껴본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는 책 뒷표지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



《서가에 꽂힌 책》 헨리 페트로스키 지음 | 정영목 옮김 | 지호 | 391쪽 | 값 15,000원